

‘파죽지세’ AI페퍼스, 원정서 선두 추격

내일 오후 7시 대전충무체육관서 정관장 상대
6승 2패 승점 16점 리그 2위…고예림 등 주목



올 시즌 역대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AI 페퍼스가 선두 추격에 나선다.

AI페퍼스는 21일 오후 7시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정관장 배구단과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치른다.

앞서 지난 18일 AI페퍼스는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 (25-22 19-25 25-21 25-10)로 승리했다. 그 결과 6승 2패 승점 16점을 기록, 리그 2위 자리를 굳혔다. 1위 한국도로공사(승점 19점)와는 불과 3점차다. 또 올 시즌 홈 5경기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안방 불패’를 이어갔다.

이 경기에서는 승부차전인 3세트에서 위기를 극복한 것이 승리로 이어졌다. 점수차가 나거나 밀리더라도 역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전 시즌들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날 AI페퍼스는 외인 조이가 양 팀 최다 33득점(공격성공률 51.79%)을 올렸다. 주장 고예림은 14득점(공격성공률 42.86%)을 기록, 진정팀에게 비수를 꽂았다. 시마무라 역시 14득점(공격성공률 63.64%)으로 공격에 힘을 보탰다.

특히 고예림의 활약은 팀에게 정말 반가운 일이다. 현대건설을 떠나 올 시즌 AI페퍼스에 합류한 고예림은 곧바로 주장 완장을 찼다. 창단 이후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했던 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고예림은 올 시즌 개막에 앞서 어깨를 다쳤다. 결국 지난 13일 흥국생명 전까지 7경기에 교체 선수로만 출전했고, 그동안 득점은 전무했다.

고예림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 건 첫 선발로 출전한 18일 현대건설전이다. 진정팀과의 경기에서 선발 아웃사이드 히터

로 나섰고 서브에이스와 블로킹 1개씩을 포함해 14득점을 올렸다.

그의 활약으로 옵션이 늘어난 AI페퍼스는 공격력에 날개가 달릴 전망이다.

19일 경기 전 기준 AI페퍼스는 공격종합 3위(시도 1114회·성공 438회·성공률 39.32%), 시간차 1위(시도 32회·성공 20회·성공률 62.50%), 이동 1위(시도 66회·성공 34회·성공률 51.52%) 등 모두 리그 상위권에 위치했다.

세터와 공격진의 원활한 연결을 판가름하는 세트 또한 2위(시도 1148회·성공 416회·세트당 평균 13.42회)인 만큼,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활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비와 범실 부분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AI페퍼스는 디그 4위(시도 776회·성공 645회·실패 130회·세트당 평균 20.81)에 이름을 올렸으나, 리시브는 6위(시도 614회·정확 193회·리시브효율 26.38%)에 머물렀다. 범실도 리그에서 3번째(156개)로 많다.

이번 경기 상대인 정관장은 현재 3승 5패 승점 7로 리그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2경기 연속 셋아웃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이다. 최근 3경기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정관장이 우위에 있다.

베테랑 염혜선 대신 최서현이 주전 세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는 세트 3위(세트당평균 9.72), 서브 4위(세트당평균 0.34)에 오르며 맹활약 중이다. 또 외인 거포 자네테가 이번 경기에서 복귀할 예정이다.

AI페퍼스가 정관장을 상대로 선두 도약을 위한 승점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18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현대건설 배구단과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한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KIA, 베테랑 우완 이태양 영입…“전전후 활용”

KBO 2차드래프트서 1라운드 전체 3순위 지명

내야수 이호연 3라운드 발탁…임기영은 삼성행

KIA타이거즈가 베테랑 우완 투수 이태양을 2차 드래프트로 영입했다.

KIA는 19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2025 KBO 2차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이태양을 지명했다.

지난 2010년 한화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이태양은 SSG를 거쳐 2023년 다시 한화로 돌아왔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부진을 면치 못하며 보호 선수 35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통산 성적은 422경기 38승 55패 1세이브 33홀드 평균자책점 4.96.

KIA는 이태양 영입 배경에 대해 “다양한 구종을 보유하고 있고,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베테랑 우완 투수이다”며 “선발, 중간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영입 대상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고, 전전후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KIA는 이태양 영입으로 한화에 1라운드 양도금 4억원을 지급한다. 또 FA 계약이 남은 이태양의 잔여 연봉도 지급한다. 그는 2023년 시즌을 앞두고 한화와 4년 25억원에 계약했다. 연봉 17억원 가운데 남은 1년 잔여 연봉 2억7000만원을 KIA가 책임진다. 즉 총 투입된 예산은 6억7000만원이다.

3라운드에서는 kt 내야수 이호연을 양도금 2억원에 데려왔다. 201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6라운드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이호연은 2023년 kt로 트레이드됐으나 또다시 유니폼을 다시 갈아입게 됐다. 이호연의 통산 성적은 240경기 141안타 6홈런 타율 0.262다.

KIA는 “올 시즌 1군에서 활약한 바 있고, 타격에서 재능이 있는 선수이다.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내야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명했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임기영은 3라운드에서 삼성에 지목돼 팀을 떠나게 됐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KBO 2차 드래프트에서는 10개 구단에서 총 17명의 선수가 지명됐다.

2년 주기로 열리는 KBO 2차 드래프트는 구단별 보호선수 35명을 제외한 소속 선수, 육성선수, 군보류선수, 육성군보류선수를 대상으로 지명을 실시한다.

입단 1~3년차 소속 선수, 육성선수, 군보류선수, 육성군보류선수와 당해 연도 FA, 외국인선수는 2차 드래프트 지명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지명 순서는 해당 연도 KBO 리그 성적의 역순으로 한다. 지명은 3라운드까지 실시하되 해당 연도 성적 하위 3



개 구단은 최대 2명의 추가 지명권이 부여된다. 또한 특정 구단의 선수에 대해 4명을 초과해 지명할 수 없다.

2차 드래프트 지명으로 선수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1라운드 지명 선수 4억원, 2라운드 2명 선수 3억원, 3라운드 지명 선수 2억원, 4라운드 이하 지명 선수 1억원의 양도금을 원소속 구단에 지급해야 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서울 동호인들 우정·화합 다졌다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 성료…4개 종목 60명 참가

전남과 서울 생활체육인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과 화합을 다졌다.

19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영광군 일원에서 개최된 ‘2025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가 서울특별시 선수단과 전남 생활체육인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교류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생활체육 교류에 대한 후속 행사로 마련됐으며, 검도·수영·농구·족구 등 4개 종목 선수단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체육회 임·직원 등 총 60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에는 영광스포티움에서 환영식을 시작으로 종목별 친선경기가 영광 해룡고등학교(검도), 영광스포티움 실내수영장(수영)·국민체육센터(농구), 영광 생활체육공원(족구) 등지에서 펼쳐졌다.

선수단은 경기력을 겨루는 동시에, 우정을 나누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또 참가자들은 불갑사와 불갑산생태공

원 등 지역 명소를 방문하며 전남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체험했고, 환영 만찬을 통해 상호 소통과 친목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백제불교최초도래지와 원불교 영산성지를 둘러본 후 전남·서울 양 부분 및 선수단이 함께 오찬을 진행하며 양 지역 생활체육의 지속적인 우호 협력을 다짐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교류는 전남과 서울이 지난 21년간 이어온 신뢰의 역사를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교류 문화를 지속해 양 지역 체육인들이 상호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역간 생활체육 교류 확대와 동호인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홍명보호, 가나 잡고 3연승…이태석 결승 골

‘포트 2’ 사실상 확정

홍명보호가 아프리카의 ‘검은 별’ 가나를 물리치고 2025년을 웃으며 마무리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와 평가전에서 전반전 슈팅 1개에 그치는 등 고전하고도 후반 18분에 터진 이태석(빈)의 헤더로 힘겹게 1-0

승리를 거뒀다.

지난달 파라과이, 이달 14일 볼리비아와 경기에서 모두 2-0으로 이긴 홍명보호는 올해 마지막 A매치인 가나전도 승리로 장식, A매치 3연승을 기록하며 ‘북중미 월드컵의 해’인 2026년을 기분 좋게 맞이한다.

태극전사들은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갔다가 3월 A매치 때 다시 모여 월드컵 본선에 대비하는 담금질을 한다.

3월 A매치 2경기는 유럽 원정으로 치

러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시간으로 12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조 추첨식에서 홍명보호의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상대 3팀이 결정된다.

이달 2연전에서 모두 승리한 한국은 23위 안에 들어야 배정되는 포트2를 사실상 확정했다.

19일 발표되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포트가 결정된다.

한국은 후반 17분 오현규와 손흥민을 빼고 조규성(미트윌란),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하며 공격진에도 변화

를 줬다.

그 직후 선제 결승 골이 터져 나왔다.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반대편 포스트를 향해 쇄도하던 이태석이 헤더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이태석이 A매치 13경기 만에 넣은 데뷔골이다.

곧바로 추격에 나선 가나의 몇 차례 날카로운 측면 공격이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한국은 후반 29분 황희찬이 왼쪽으로 찬 페널티킥이 방향을 잃은 골키퍼 벤자민 아사레의 선방에 막히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최근 영광군 일원에서 개최된 ‘2025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가 서울특별시 선수단과 전남 생활체육인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